

두쪽난 기념식 공허한 대통합

‘임을 위한...’ 제창 갈등, 5·18묘지·구묘역 따로 행사

5·18 33주년
▶ 관련기사 2·3·6·7면

5년만의 대통령 참석

5·18 재인식 계기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이 끝내 ‘반쪽짜리’로 치러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5년 만에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음에도 유족·유공자를 비롯한 5월 단체 회원 상당수가 기념식에 불참하면서다.

이날 기념식은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할 새로운 추모곡 예산을 편성한 데다 독재에 맞선 민주항쟁을 일부 보수 세력들이 ‘폭동’으로 왜곡하고 폄하하는 ‘역사 부정’ 행태 등으로 국민 분열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치러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을 역설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등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갈등의 국민통합은 끝내 찾아볼 수 없었다.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이 지난 18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주요인사, 국회의원, 유공자, 유족,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함으로써 현정부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대표하는 5·18 민주항쟁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기념식은 대통령 헌화·분향, 광주 지방보훈청장의 경과보고, 대통령 기념사,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 로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인천 오페라 합창단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때는 참석자들 대부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쥐거나 태극기를 흔들며 제창했다. 박 대통령은 태극기를 건네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연주를 경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5월 상징곡으로 여태껏 불리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에서 제외키로 했다가 뒤늦게 포함하는가 하면,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부르는 ‘제창’이 아닌 합창 형태로 결정하면서 5·18 민주항쟁 기념식의 주인공인 5월 관련 단체장과 회원, 시민단체, 광주시의회의원 등이 기념식에 불참해 ‘반쪽’으로 치러졌다.

광주·전남진보연대, 시민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 등은 아예 망월동 구묘역에서 같은 시각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대회’로 자체 기념식을 했고 일부 유족들은 5·18 국립묘지 내 기념식장이 아닌, 민주의 문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항의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부터 5·18 묘지 입구인 민주의 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며 밤을 새우기도 했다.

구묘역과 국립묘역에서 별도의 행사가 치러진 것은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식순 배제로 지역 사회가 반발했던 2010년 이후 3년 만이다.

한편 이날 서울과 부산, 대전, 충남, 강원 등 5개 광역 시·도와 목포, 순천 등 12개 시·군은 물론 독일 등 해외에서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김지수기자 dok2000@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서 인천오페라합창단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자 태극기를 든 채 경청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강문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은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제창한 반면, 박 대통령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따라부르지 않았다. /김지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정신 국민통합으로 승화돼야” “기성정치에 광주정신 흔들”

차대통령 5·18기념사... ‘임을 위한 행진곡’ 언급 안해 안철수 직격탄... 새정치 인재영입 기준도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 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정신이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으로 승화돼야 한다”며 대선공약인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5년 만에 5·18 기념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민주주의의 큰 진전을 이뤄냈지만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의 골은 메워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을 넘어,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5·18 정신이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으로 승화돼야 하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

력을 다하겠다”며 “그 길에 민주화를 위해 고귀한 희생과 아픔을 겪으신 여러분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민통합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33년의 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의 아픔을 지우지 못하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과 광주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족을 잃고 벗을 떠나보낸 그 아픈 심정은 치유할 수 없을 것이며, 저 역시 매년 5·18 국립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광주의 아픔을 느낀다”며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국가보훈처의 거부로 논란이 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합창공연 때도 제창을 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광주지역 301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 추진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 33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는 않았지만, 태극기를 들고 화답한 것은 그간의 정부 입장에 비해 진일보된 모습”이라며 “특히 대다수 정치인이 여야 구분없이 태극기를 흔들거나 주먹을 쥐고 제창하는 것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제 33주년 기념행사가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민통합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이 되었음을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박진표기자juckey@

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생활정치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주체가 넓고 다양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정치구조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기득권 청산 의지가 있는 분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안 의원이 지난해 대선 이전부터 주장해온 ‘새 정치’의 방향점과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독자 세력화를 위한 인재 영입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또한, 지난 대선에서 광주 지역민의 지지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광주가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씨앗과 중심이 되어달라”며 “저는 그 마음물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pinkcampaign.com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2013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일시: 2013년 6월 2일(일) 오전 8:30
장소: 광주 상무시민공원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신청: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을 입력하세요.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9744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스포츠 양말

주최 |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주관 | AMORE PACIFIC
후원 | 보건복지부 · 한국유방암학회 협찬 | HERA · 케토름 · 르까프